

단절에서 통합으로: 리영 리 시의 정체성 탐구에 관한 연구*

윤 희 수

차 례

- I. 서론
- II. 단절과 이탈의 경험
- III. 보편적 자아로의 열망
- IV. 결론

I. 서론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계 미국 시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리영 리(Li-Young Lee, 1957~)가 어떻게 자신을 중국계 미국인으로 규정하는 폭 좁은 인종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인종적 특성을 공유하는 보편적 자아로의 열망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의 두 편의 시, 「감」(“Persimmons”)과 「쪼개기」(“The Cleaving”)를 면밀하게 분석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어떻게 그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했던 한 중국계 미국인에서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으로 거듭나려 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모택동의 주치의였던 아버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대총통을 역임한 원 세개의 손녀였던 어머니가 문화혁명의 와중에 중국을 탈출하여 망명생활을 시작했던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리영 리는 부모를 따라 마카오, 홍콩을 거쳐 끝내 1964년 미국에 정착하는 이주의 과정을 겪었다.¹⁾ 그 결과 리영 리의 시는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4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리영 리의 부모와 미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빌 모이어스(Bill Moyers)와의 인

첫 시집 『장미』(*Rose*)에 수록된 「나의 인디고」("My Indigo")의 구절처럼 “두 세계에서/ 동시에/ 잠시 살고 있는”(live/ a while in two worlds/ at once)²⁾ 이민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절과 이탈의 감정”(a feeling of disconnection and dislocation)을 표현한다(Moyers 32). 특히 그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는 「감」은 낯선 언어 환경에 노출된 어린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의 과정을 자기 고백적 문체로 드러낸다.

중국계 이민자로서의 그의 태생적 특징과 시적 소재의 범위로 인해 리영 리는 『장미』의 서문을 붙인 제럴드 스텐(Gerald Stern)의 지적처럼 “어떤 중국의 사고나 중국의 기억들을 자의식적인 민족 중심적 태도 없이 추구”해온 시인으로 자리매김 되어왔다(*R* 9). 주디스 키친(Judith Kitchen) 역시 두 번째 시집 『내가 당신을 사랑한 도시』(*The City In Which I Love You*)에 대한 서평에서 리영 리를 “자신의 전통과 유산을 이해하려 애쓰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규정하고(160), 이빙 황(Yibing Huang) 또한 리영 리의 수기 『날개 달린 씨앗: 하나의 회상』(*The Winged Seed: A Remembrance*)을 “전통과 부모 세대가 늘상, 어떻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고통과 짐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전형적인 우화”로 평가한다(190). 리영 리는 중국계 이민자의 경험을 형상화한 『장미』와 『내가 당신을 사랑한 도시』 그리고 수상집 『날개 달린 씨앗』에 대해 각각 델모어 슈워츠 기념상과 러몬트 시 선집상, 미국 도서상을 수상함으로써 미국 문학의 스펙트럼을 다채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 소수 인종 시인으로서의 탄탄한 위치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리영 리는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하여 그 저변을 확대하여 온 미국 문학의 최근 동향에 편승해서 1980년대 이후 주목받아 온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 가운데 그 한 정점을 차지해 온 시인이다.

그러나 리영 리는 『장미』와 『내가 당신을 사랑한 도시』의 마지막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있는, 자신의 출생지를 포함하여 부모의 망명과 이주의

터뷰 “A Well of Dark Waters,” *Breaking the Alabaster Jar: Conversations with Li-Young Lee*. Ed. Earl. G. Ingersoll. (Rochester, NY: BOA Editions, 2006), 30-31을 참조함.

2) Li-Young Lee, *Rose*. (Brockport, NY: BOA Editions, 1986), 31. 이하 *R*로 약칭하며 리영 리의 두 번째 시집 *The City in Which I Love You*는 *C*로, 그의 수기 *The Winged Seed*는 *W*로 각각 약칭한다.

삶과 관련된 전기적 사실을 세 번째 시집 『나의 밤들의 시집』(*Book of My Nights*)(2001)부터는 삭제함으로써 자신을 단순히 중국계 미국인 작가로 분류하는 미국 사회의 관행에 불편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다. 그는 토드 마샬(Tod Marshall)과의 대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문화적 존재”에 대한 불만과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출한다.

나는 문화적 존재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을 만들어낸 것은 문화입니다.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엘리엇, 단, 로르카, 두보, 네루다, 시편의 작가 다윗을 통한 시의 정신적 계보입니다. . . . 어떻게 해서든 예술가는 더 이상 문화적이지 않는 자신의 존재, 자아에 본질적인 대화, 가장 진정한 자아와의 대화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장 별거벗은 정신을 말입니다. (132)

문화와 무관한 진정한 자아와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리영 리의 의지는 세 번째 시집 『나의 밤들의 시집』부터 중국계 미국인의 경험을 다룬 시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로도 나타난다. 그는 위의 대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제임스 경진 리(James Kyung-Jin Lee)와의 또 다른 대담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인과 이민에 관한 모든 상투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무도 아닌 존재”(nobodyhood)에 도달하고 싶다는 바람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어떤 이로서의 존재”(somebodyhood)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거나 강요하는데 이는 진정으로 알고 허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만일 내가 “아무도 아닌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누구나인 존재”(everybodyhood)와 같은 것으로서, 허위적이고, 조작된, 할리우드 잡지, 대학이나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이로서의 존재” 보다 풍부하고 잠재적 가능성으로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275)

문화가 부여하는 “어떤 이로서의 존재”가 “알고 허위적”이라는 말은 한 개인을 분류하고 전형화하는 미국 사회의 인종 분류 기준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역설적이게도 “누구나인 존재”와 동일시하는 “아무도 아닌 존재”는 인종적 특성이나 국적을 초월한 한 인간의 본질적이고 “가장 진정한 자아”로서, 전 인류의 특성을 공유하는 보편적 인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각각 그의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대표하는 「감」과 「쫄개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리영 리의 시가 어떻게 이민자로서의 “단절과 이탈”의 경험을 표현하는 데서 출발해서 끝내 협소한 인종적 경계선을 뛰어넘어 포괄적인 인간 주체를 지향하는지 그 궤적을 추적하려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한 소수인종 시인이 보여주는 정체성 탐색의 한 방향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 단절과 이탈의 경험

「감」(“Persimmons”)은 중국계 이민자로서의 적응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취급한 리영 리의 대표 시로 평가받으며 『노튼 현대시 선집』에 수록되어 미국 문학의 정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이민자의 경험을 미국시의 고백체적 형식과 접목시켜 서로 다른 문화적 원소들 사이의 “혼성적 중재”(hybridizing mediation)(Ramazani 18)를 시도한 이 시는 “*persimmon*”과 “*precision*”의 발음을 구분하지 못해 교사로부터 받은 체벌과 굴욕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6학년 시절 워커 선생님이
내 뒤통수를 철썩 때리고
구석에 서 있게 한 것은
감과 정밀함의
차이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감을

고르는 법. 이것이 정밀함이다.
잘 익은 감은 부드럽고 갈색의 반점들이 있다.

밑바닥을 냄새 맡아보라. 단감은
향기가 날 것이다. 먹는 방법:
칼을 치우고, 신문지를 깔아,
과육을 찢지 않도록, 껍질을 부드럽게 벗기고,
껍질을 씹어, 빨고,
삼킨다. 이제,
너무도 달콤한
과육을,
송두리째, 속까지 먹는다.

In sixth grade Mrs. Walker
slapped the back of my head
and made me stand in the corner
for not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persimmon* and *precision*.
How to choose

persimmons. This is precision.
Ripe ones are soft and brown-spotted.
Sniff the bottoms. The sweet one
will be fragrant. How to eat:
put the knife away, lay down newspaper.
Peel the skin tenderly, not to tear the meat.
Chew the skin, suck it,
and swallow. Now, eat
the meat of the fruit,
so sweet,
all of it, to the heart. (R 17)

부모로부터 만다린 중국어를 모국어로 물려받은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 어휘 앞부분의 연속된 *pr*은 발음하기 어려운 자음의 조합이지만(Yao 150),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교사는 체벌을 통해 주류 문화의 언어

환경에 동화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리영 리는 잘 익은 감을 고르고 먹는 절차에는 정밀함이 요구된다고 말함으로써 겉보기에 연결고리가 없는 감과 정밀함 사이의 보이지 않는 관련성을 제시하며 교사에게 무언의 항변을 한다. 감을 먹는 방법을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그가 나열한 “ripe,” “bottoms,” “lay down,” “skin,” “suck” 등의 어휘들은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시를 과거의 불쾌했던 체험으로부터 아내와의 성행위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킨다.

도나가 옷을 벗는다, 그녀의 배가 희다.
 이슬 맺히고 귀뚜라미로 떨리는,
 마당에서, 우리는 벌거벗고 눕는다,
 한사람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한사람은 땅으로 향한 채.
 나는 그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귀뚜라미는 *치우 치우*. 이슬은 잊어버렸다.
 벌거벗다도 잊어버렸다.
*니, 워*는 너와 나.
 나는 그녀의 두 다리를 벌리고,
 잊지 않고 그녀에게 말 한다
 달처럼 아름답다고.

Donna undresses, her stomach is white.
 In the yard, dewy and shivering
 with crickets, we lie naked,
 face-up, face-down.
 I teach her Chinese.
 Crickets: *chiu chiu*. Dew: I've forgotten.
 Naked: I've forgotten.
Ni, wo: you and me.
 I part her legs,
 remember to tell her
 she is beautiful as the moon. (R 17)

화자가 백인 아내 도나와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은 아시아계 남성을 “여성화되고” “비성적인”(asexual) 존재로 상투적 전형화 시켜온 역사적 관점에 도전한다. 또한 이태리어로 귀부인을 뜻하며 원형적 여성성을 환기하는 도나는 이질적인 문화에 동화하려는 남성 이민자의 욕망의 궁극적 목표이며 상징으로서(Yao 152-3) 화자가 그녀를 성적으로 지배하고 그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상황은 영어 발음 때문에 체벌을 받았던 과거의 화자와 대조를 이루면서 관계의 역전을 보여준다. 화자는 더 이상 정확한 영어 발음을 강요받는 가르침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인 아내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능동적 주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롭고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한 듯 보이는 화자는 간단한 중국어 어휘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는, 문화적 근원으로부터의 단절을 겪는다. 어린 시절의 화자를 곤경에 빠뜨렸던 또 하나의 단어 조합 “fight”와 “fright”와 관련하여 “두려움은 내가 싸울 때 느꼈던 감정”(Fright was what I felt when I was fighting)(R 17)이라는 화자의 말은 이질적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모국어를 비롯한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자의 경험 속에 이처럼 감과 정밀함, 싸움과 두려움은 의미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새로운 문화는 단순히 발음상의 이유로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언어 관행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국적인 과일인 감 한 개 교실에 들고 온 워커 선생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화자는 워커 선생님이 대표되는 주류문화에 의해 자신의 문화적 전통이 타자화 되고 소외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워커 선생님은 감 한 개를 교실로 들고 와
 자르고선
 누구나 중국식 사피를
 맛볼 수 있게 했다.
 익지 않았거나 달지 않은 줄 알았기에
 나는 먹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Mrs. Walker brought a persimmon to class

and cut it up
 so everyone could taste
 a *Chinese apple*. Knowing
 it wasn't ripe or sweet, I didn't eat
 but watched the other faces. (R 18)

감을 “중국식 사과”로 지칭하는 교사는 타문화에 대한 주류 문화의 “무지와 오만”을 대변한다(Xu 145). 시인은 “*Chinese apple*”과 “Knowing”을 병렬함으로써 시인은 교사의 타 문화에 대한 무지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대조한다. 그러나 화자는 교사가 잘라서 나눠 준 덜 익은 감을 먹고 분명 얼굴을 찡그렸을 동급생들로부터 소외감과 문화적 격차를 피할 수는 없다. 리영 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회자로 활동했던 펜실베이니아 주의 작은 마을 이스트 밴더그리프트(East Vandergrift)에서 “너희는 집 뒤 켄 베란다에 놓인 자루 속에 뱀과 메뚜기를 넣어두고....접시를 입까지 들어 올려 젓가락으로 음식을 밀어 넣는다”(W 86)는 놀림을 당하며 고유의 음식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이민자의 고유한 음식 문화에 대한 오해와 혐오감으로 이민자는 손쉽게 타자로 배제당하는 것이다.

감은 화자에게 교실에서 굴욕감을 주고 “cut it up”이 암시하듯 주류문화로부터의 배제와 소외를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 자신을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근원인 부모와 엮어주는 매개체로서 작용하기도 하다.

어머니는 모든 감마다 그 속에 햇님이,
 황금빛의, 빛나는
 내 얼굴처럼 따뜻한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다.

언젠가, 다락방에서, 신문에 싸인 감 두 개를 찾았다,
 잇고 있던 아직 익지 않은.
 나는 그것을 가져다 내 침실 창턱에 올려놓았다,
 그곳에서 아침마다 흥관조 한 마리가
 노래했다, 햇님, 햇님 하면서.

My mother said every persimmon has a sun
inside, something golden, glowing,
warm as my face.

Once, in the cellar, I found two wrapped in newspaper,
forgotten and not yet ripe.

I took them and set both on my bedroom windowsill,
where each morning a cardinal
sang, *The sun, the sun.* (R 18)

어머니에게 붉은 색 등근 감과 그 씨앗은 아들의 동그란 얼굴과 빛나는 태양을 연상시키고 “sun”과 동음이의어인 “son”과도 연결됨으로써 감은 모자 사이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매개체가 되고, 화자는 어머니의 따스한 애정으로 교실이라는 적대적인 현실에서 겪었던 훈육과 처벌을 보상받는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달콤한”(sweet as love) 감은 동시에 말년에 시력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자극하는, “슬픔처럼 무거운”(heavy as sadness) 것이기도 하다(R 18).

올해, 부모님의 다락방
침침한 불빛 속에서 나는 손으로 더듬어,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는다.
아버지는 낡은 나무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
두 손을 포개, 손잡이를 움켜쥐고 계신다.
아버지는 내가 집에 오자 몹시 기뻐하신다.
눈이 어떠시냐는, 나의 어리석은 질문에
완전히 멀었다고 대답하신다.

This year, in the muddy lighting
of my parents' cellar, I rummage, looking ,
for something I lost.
My father sits on the tired, wooden stairs,

black cane between his knees,
hand over hand, gripping the handle.
He's so happy that I've come home.
I ask how his eyes are, a stupid question.
All gone, he answers. (*R* 18-9)

화자가 부모님의 다락방을 뒤져 찾는 “잃어버린 어떤 것”은 집을 떠나 지내는 동안 멀어졌던 부모님과의 유대감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가 상실한 문화적 전통을 암시하기도 한다. 눈을 감고도 “손목의 긴장된 정밀함”으로 감을 비단천위에 수목화로 그렸던 아버지의 모습은 근원적 전통으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화자와 뚜렷이 대조된다.

담요 몇 장 아래서, 상자 한 개를 찾는다.
상자 안에서 찾은 족자 세 개.
곁에 앉아 아버지가 그린
그림 세 점을 본다:
부용 잎사귀와 흰 꽃 한 송이.
서로를 다듬는 고양이 두 마리.
속이 팍 차 화폭에서 떨어지고 싶은 감 두 개.

아버지는 양 손을 들어 천을 만지며,
묻는다, *이게 뭐지?*

감입니다, 아버지.

*오, 비단을 스치는 붓의 감촉,
힘과, 손목의 긴장된 정밀함.
수백 번을 그렸지,
눈을 감고서, 눈이 멀어도 그렸었지.
어떤 것은 사람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는 단다: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 냄새,
감의 질감,*

손바닥의, 잘 익은 무계감.

Under some blankets, I find a box.
Inside the box I find three scrolls.
I sit beside him and untie
three paintings by my father:
Hibiscus leaf and a white flower.
Two cats preening.
Two persimmons, so full they want to drop from the cloth.

He raises both hands to touch the cloth,
asks, *Which is this?*

This is persimmons, Father.

*Oh, the feel of the wolftail on the silk,
the strength, the tense
precision in the wrist.*

*I painted them hundreds of times
eyes closed. These I painted blind.
Some things never leave a person:
scent of the hair of one you love,
the texture of persimmons,
in your palm, the ripe weight. (R 19)*

기울임체로 표시하여 아버지와 대화의 모국어인 만다린 중국어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면서 화자는 수백 번을 그려 눈을 감은채로, 실명을 하고서도 정밀한 손목의 움직임으로 감의 “질감”과 “잘 익은 무계감”을 표현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랜 망명과 이주의 과정을 거치고서도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해 온 의지를 발견한다. “어떤 것은 사람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 씬은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모국어 단어조차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어떤 것”을 더듬어 찾는 화자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또한 화자

는 족자에 그려진 부용꽃과 고양이가 중국 문화 속에서 갖는 부귀영화와 장수라는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거나 이를 시의 내용과 연결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근원에서 이미 멀찌감치 벗어나 있음을 나타낸다(Yao 160). 이와 같은 전통과의 거리감은 『장미』에 수록된 「어머니에게 노래를 청하다」(“I Ask My Mother to Sing”)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 속에 담긴 중국의 역사적 명소를 가본 적이 없어 낯설어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어머니가 노래를 시작하자, 할머니가 따라하신다.
모녀가 소녀들처럼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아코디온을 연주하며
배처럼 몸을 흔드셨을 텐데.

나는 북경에도, 이화원에도 간 적이 없다.
거대한 대리석 배에 타서 곤명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을 본 적도 없다, 소풍객들이
잔디에서 뛰어나가는 모습도.

She begins, and my grandmother joins her.
Mother and daughter sing like young girls.
If my father were alive, he would play
his accordion and sway like a boat.

I've never been in Peking, or the Summer Palace,
nor stood on the great Stone Boat to watch
the rain begin on Kuen Ming Lake, the picnickers
running away in the grass. (R 50)

떠나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달래려는 부모세대와 달리 중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화자에게 “북경,” “이화원,” “곤명호”로 대표되는 문화적 전통은 향수를 느낄만한 대상이 아니며 단지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억과 노래를 통해서만 전수될 뿐이다(Xiaojing 116). 따라서 아버지가 그린 부용과 고양

이의 그림이 화자에게 아무런 상징적 의미와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은 그가 “내 자신과 동일 시 할 수 있었던 이 난민의 위대한 초상”이라 부르는 아버지(Moyers 48)와 화자 사이에 사실상 좁히기 힘든 문화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동화의 과정에서 겪는 전통의 상실과 정체성의 위기를 주제로 이민자 체험의 한 전형을 형상화한다.

III. 보편적 자아로의 열망

두 번째 시집 『내가 당신을 사랑한 도시』에 수록된 시 「쪼개기」에서 리영 리는 「감」에서 보여준 전통과의 단절감과 정체성의 위기를 넘어서 같은 민족과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회복하고 끝내 자신을 인종적 울타리를 초월한 “누구나인 존재,” 곧 보편적인 자아로 발전시키려는 열망을 보여준다. 리영 리는 예리한 칼로 “쪼갠다”와 무엇인가에 애착을 갖고 “집착한다”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cleaving”을 제목으로 설정하여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차별화된 중국계 이민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직업과 출신 지역, 언어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끼리의 애착심과 동질감을 표현한다. 그는 차이나타운의 식품점에서 고기를 썰어 파는 한 중국인 남성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한다.

내 얼굴을 지닌 이 남자,
 그는 나의 할머니처럼 수다스럽다,
 나는 오후 내내
 그가 자른 고기들이 매달린
 혼 키 식품점에 즐거운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이다.
 코와 어깨가 걸려 매달린
 암퇘지에서 자른
 구운 고기,
 껍질 전부가 바삭 타버려

그 맛이 달콤할 것을 나는 안다,
 반짝거리는 암탉지의 얼굴은
 한 줄로 매달린
 오리들을 올려다보며
 씩 웃는다,
 오리는 한 마리씩 시키면 갈고리에
 가슴과 부리가 꿰뚫린 채 매달려
 형겅에 덮힌 영덩이에서
 김을 뿜어낸다.
 내가 계산대로 걸어가 암송하듯 말하자,
 그는, 지금의 고백이나 열변의 박자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기름 묻은 영수증 위에 내 주문을 갈겨쓰고는,
 빠르게 토막을 낸다.

He gossips like my grandmother, this man
 with my face, and I could stand,
 amused all afternoon
 in the Hon Kee Grocery,
 amid hanging meats he
 chops: roast pork cut
 from a hog hung
 by nose and shoulders,
 her entire skin burnt
 crisp, flesh I know
 to be sweet,
 her shining
 face grinning
 up at ducks
 dangling single file,
 each pierced by black
 hooks through breast, bill,
 and steaming from a hole

stitched shut at the ass.
 I step to the counter, recite,
 and he, without even slightly
 varying the rhythm of his current confession or harangue,
 scribbles my order on a greasy receipt,
 and chops it up quick. (C 77)

식품점에 진열된 돼지고기와 오리를 상세히 묘사하여 미국인들과 다른 중국인들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소개하면서 화자는 “그 맛이 달콤할 것을 나는 안다”고 말하며 이 음식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한다. 어린 시절 잘 익은 감을 고르고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통해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주었듯이 성년의 화자는 음식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 부모로부터 습득한 만다린 중국어로, “recite”가 가리키듯 어렵사리 암송하듯 주문하는 화자와 “고백이나 열변의 박자”를 구사하는 “강 지역 출신의 남부 사람”(a Southerner from a river-province)(C 79)인 식품점의 남성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언어적 격차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화자가 식품점 남성의 “슬픈 중국인의 얼굴”(a sorrowful Chinese face)에서 “내 얼굴”과 “내 형제”(my brother)(C 78)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낯선 환경에서 이민자로서 고달픈 삶을 거쳐 온 자신과의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학자에 어울리는, 그의 얼굴을
 펼친 책 위에 두고,
 좋아하는 구절들을 중얼거리리라.
 그는 나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1917년 서구식 교육을 받으려
 미국에 왔지만, 공부를 하기엔 고향이 너무 그리워,
 온종일 공원에 앉아, 시를 읽고
 어머니께 편지를 쓰셨지.

suited for scholarship, his face poised

above an open book, he'd mumble
his favorite passages.
He could be my grandfather:
come to America to get a Western education
in 1917, but too homesick to study,
he sits in the park all day, reading poems
and writing letters to his mother. (C 78)

비록 식품점에서 고기를 썰는, 어쩌면 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가 오래 전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화자는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계 이민자들의 힘든 개인사를 찾아낸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각자 특별한 사정과 개성을 지닌 이민자들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고 이들을 단순한 인종적 분류법에 따라, 리영 리가 말하는 “어떤 이로서의 존재”(somebodyhood)와 “문화적 존재”(cultural existence)로 전형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푸줏간 주인이 능숙한 칼 솜씨로 반으로 가른 오리의 “두개골 속에/ 태아처럼 웅크린”(foetal-crouched/ inside the skull)(C 79) 뇌를 경탄의 표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눈치 챈 주인이 자신에게 건넨 부위를 집어 삼키면서 화자는 이 이심전심의 행위 속에 깃든 문화적 함의를 드러낸다.

푸줏간 주인은 내가 이 별미를 결눈질하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두개골에서
그것을 집어
나에게 내민다.
나는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아주 조심스레 잡고
꿀꺽 삼킨다.
나의 동족을 먹는 것이다.

The butcher sees me eye this delicacy.
With a finger, he picks it
out of the skull-cradle

and offers it to me.
 I take it gingerly between my fingers
 and suck it down.
 I eat my man. (C 79-80)

오리의 두개골을 열어 뇌를 꺼내 먹는 독특한 중국의 식문화는 여진족을 물리치고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간신 진희의 모함으로 처형당한 중국 송나라의 장수 악비(Yu Fei)의 유훈을 달래는 제례적 의미를 내포한다. 분노한 대중의 돌팔매질을 피해 진희가 숨어들었다고 믿는 닭의 뇌를 고소하다는 듯 꺼내 먹어 악비의 영혼을 달랬다는 중국의 우화를 인용함으로써 화자는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심을 보여주고 푸줏간 주인과의 상호 교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직업, 출신지역,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리의 뇌를 먹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공통의 민족적 문화유산을 이심전심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에서 중국어 단어를 잊어버려 전통과의 단절감을 드러냈던 리영 리는 이 시에서 악비의 전설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자신을 중국 “문화의 내부자”(cultural insider)로 재설정하고 단절감을 보상을 받으려 한다(Xu 151). 나아가 이 삼김의 행위는 시인의 중국계 이민자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포용으로 발전된다.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얼굴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에,
 내가 그리워하는
 몸둥이와 그 체취,
 열세명이 주목을 둘러싸고 모여앉아
 하루를 끝내며,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게걸스레,
 네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조리된
 네 종류의 고기를
 열심히 먹는다,
 밥과 야채를 담은 수많은 접시와 사발들,

각각 독특한 정성으로 만들어져
많은 이의 손으로 식탁으로 날라진다.

피와 모양새로 맺어진 형제자매들,
다양한 형상의 각기 다른 몸으로 앉아,
우리는 많은 이들로 구성된
사랑의 집단을 형성한다.

These
are the faces I love, the bodies
and scents of bodies
for which I long
in various ways, at various times,
thirteen gathered around the redwood,
happy, talkative, voracious
at day's end,
eager to eat
four kinds of meat
prepared four different ways,
numerous plates and bowls of rice and vegetables,
each made by distinct affections
and brought to table by many hands.

Brothers and sisters by blood and design,
who sit in separate bodies of varied shapes,
we constitute a many-membered
body of love. (C 80-81)

차이나타운 시장터에 모여 앉아 고유의 음식을 먹는 동족의 모습에서 시인은 혈육의 정과 사랑을 느낀다. 『장미』에 수록된 「함께하는 식사」(“Eating Together”)(R 49)에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유대감과 가족애를 표현했던 시인은 그 유대와 결속의 범위를 중국계 이민자 전체로 확장한다. “모두가

다양성으로 인해 아름답다”(All are beautiful by variety)(C 81)는 진술로 다양한 개인사를 간직한 다양한 모습과 몸짓의 동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뒤 시인은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집어 삼켜 표현하려는”(devour the world to utter it)(C 82) 욕망을 드러낸다.

“나의 읽기는 일종의 먹기이고, 나의 먹기는/ 일종의 읽기”(my reading a kind of eating, my eating/ a kind of reading)(C 82)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시인은 집어 삼켜 먹는 행위가 친숙한 것과 생소한 것을 제압하는 행위로서 (Xiaojing 127) 낯선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시인은 인종적 편견으로 폄하되어 온 중국민족을 집어 삼켜 이해하고 포용하여 시로 노래하려는 포부를 보여준다.

나는 이 인종을 집어삼켜 노래하고 싶다,
에머슨에 따르면
3, 4천년 동안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특징을
간직해온 이 인종을.
나는 이 특징들과, 지난 3, 4천년의 세월과,
모든 머리카락을 먹고 싶다.
그리고 에머슨과, 그의 투명한 영혼과,
그의 졸린 초월성을 먹고 싶다.

I would devour this race to sing it,
this race that according to Emerson
managed to preserve to a hair
for three or four thousand years
the ugliest features in the world.
I would eat these features, eat
the last three or four thousand years, every hair.
And I would eat Emerson, his transparent soul, his
soporific transcendence. (C 83)

중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특징”을 보존했다는 에머슨의 주장은 다른 인종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반면에 중국은 민족적 순수성을 보존하여 “미이라의 명성”을 누려온 정체된 국가임을 지적한 것이다(378-79). 리영 리는 서구 중심적 우월성에 사로잡힌 에머슨이 인종차별적으로 폄하하는 중국인의 추악한 특징을 받아들여 기꺼이 그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투명한 영혼”과 “초월성”으로 대표되는 에머슨의 초월주의까지 수용하려는 적극적 포용과 관용의 태도를 보여준다. 에머슨의 초월성을 즐립다-“sporific”-고 함으로써 가시적 현상 너머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의 초월주의가 실효성 없고 무기력한 추상적 사상체계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Patridge 117), 리영 리는 에머슨조차 집어삼키는 행위를 통해 존재간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그의 초월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타인종과 연결시켜 자신을 보편적 주체로 확대할 준비를 갖춘다.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에머슨의 “초월성의 영역 속에는 먹는 것과 먹히는 것 사이에 선택할 것이 전혀 없다”는 비유로 초월주의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개념을 설명한다(13). 우주를 관류하는 “거대한 영혼”(Oversoul)과 보편적 진리의 큰 틀 안에서 구성체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초월주의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리영 리는 “우리는 먹는 순간 먹힌다”(As we eat we're eaten)(C 85)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중국인을 폄하하는 에머슨을 먹어, 곧 그를 수용하고 그의 초월주의에 영향 받아 자신을 협소한 인종적 울타리에 벗어나게 할 일대 “변화”를 모색한다.

쉬운 일이 아닌, 폭력.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 변화. 변화는
 지워진 자와 지운 자의
 포용 속에,
 열린 자와 여는 자의 서약 속에 존재한다;
 도끼는 영혼에 축에 그것을 완성한다.
 그렇다면 나를 갈라놓는 것에
 집착하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No easy thing, violence.
 One of its names? Change. Change
 resides in the embrace
 of the effaced and the effacer,
 in the covenant of the opened and the opener;
 the axe accomplishes it on the soul's axis.
 What then may I do
 but cleave to what cleaves me. (C 86)

인증적 편견으로 주류에서 배제되고 그 존재감이 지워진-“the effaced”-중국인으로서의 시인이 자신을 갈라놓은 그 편견의 주체-“the effacer”-를 끌어안고 애착을 갖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그는 자아의 변화를 시도한다. “가른다”와 “집착하다”의 상반적 의미를 지닌 이 시의 제목이 보다 명확해지는 이 구절에서 시인은 인증적 편견과 차별마저도 끌어안는 포용의 정신을 보여준다. 리영 리는 모이어스와의 대답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변화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이 시를 쓰기가 조금 겁이 났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자신 속에서 모든 인간을 보고 그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폭력을 저질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초월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초월이 쉽고, 가볍고, 날개가 잔뜩 달린 그런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오로지 한 가지 종류의 초월, 한 가지 종류의 폭력만이 존재한다고 깨달았던 이유는 미국 생활이 하나의 폭력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처럼 느낀다면 말입니다. 내 생각에 동화는 폭력적인 경험입니다. 폭력의 한 가지 이름은 변화입니다. (54)

리영 리가 말하는 변화는 곧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고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어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대로 상대방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호 이해와 동화를 향한 격렬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처럼 자신을 타자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중국계 이민자 리영 리가 선택한 것은 인종적 편견마저 수용하고, 배타적인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 인종 간의 상호 관련성의 인식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모든 이의 존재”, 곧 보편적 자아로 확대하는 일이다. 그는 시의 최종 연에서 푸줏간 주인의 얼굴에서 시대와 인종과 성별, 그리고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얼굴임을 인정한다.

... 그의 상 왕조 시대 얼굴이 지닌
슬픔,
가느다란 눈을 가진 아프리카인의 얼굴. 그는
내 누이,
이 아름다운 베두인, 이 술람미 여성,
안식일의 수호자, 성서의
예언자, 이 어두운 피부의
무희, 이 유대인, 이 아시아인,
캄보디아 인, 베트남 인의 얼굴을 한 인간,
내가 매일 만나는 이 중국인,
이 이민자,
내 자신의 얼굴을 한 이 사람.

... the sorrow of his Shang
dynasty face,
African face with slit eyes. He is
my sister, this
beautiful Bedouin, this Shulamite,
keeper of sabbaths, diviner
of holy texts, this dark
dancer, this Jew, this Asian, this one
with the Cambodian face, Vietnamese face, this Chinese
I daily face,
this immigrant,
this man with my own face. (C 86-7)

푸줏간 주인이 중국의 고대 상 왕조의 얼굴을 지녔다는 말은 중국인이 “3, 4 천년 동안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특징을/ 간직해온” 인종이라는 에머슨의 말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시인은 그를 아프리카, 중동과 유대, 캄보디아와 베트남 인의 모습과 연결함으로써 중국 민족의 부단한 이주(diaspora)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종, 타문화와의 결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를 자신의 누이로 지칭하여 성별의 제약까지도 초월하면서 리영 리는 인류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인간성을 공유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는 다양한 기원과 특색이 담긴 그의 얼굴이 곧 자신의 얼굴임을 인정하며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모든 경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보편적 자아를 지향한다. 이처럼 「쫓개기」에서 리영 리는 푸줏간 주인과 자신의 교감을 통해 중국인 이민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재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에머슨의 초월주의를 수용함으로써 폭 좁은 인종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누구나인 존재” 곧 통합적이고 보편적 주체로 향하려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감」과 「쫓개기」를 분석하여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전통으로부터의 단절감을 필연적이지만, 같은 민족에 대한 애정과 동질감으로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른 인종들과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주체로 나아가려는 시인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영 리는 단순히 미국사회에서 피부색과 출신국가로 분류되지 않는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소수 인종 이민자의 소박한 바람을 넘어, “자신의 가장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는 탐색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초기 시에서 기억으로 회상된 아버지를 이민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설정하였던 리영 리가 세 번째 시집부터 점차 종교적 성찰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방향 전환을 보여준 것은 문화적 존재를 넘어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열망을 심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쫓개기」의 후반부에서 리영 리가 중국인을 폄하

한 초월주의자 에머슨을 끌어안은 것은 인종적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포용과 통합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

리영 리는 이민자로서 “절대적으로 분리되고” “전적으로 소외된” 처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사회에 동화됨으로써 “고향처럼 편안해지 싶다”는 바람을 피력한 바 있다(Piccione and Rubin 47-48). 그러나 그는 그것이 미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소망임을 잘 알고 있다. 리영 리는 쿠퍼(Patty Cooper)와 유(Alex Yu)와 가진 대담에서 필립 레빈(Philip Levine)과 함께 시 낭송에 초대되었을 때 주최 측이 레빈을 “유대계 미국 시인”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미국 시인”으로 부른 반면, 자신은 “중국계 미국 시인”으로 지칭했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61). 이 일화를 통해 그는 미국 사회에서 피부색이 인종, 나아가 인간 분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백인이 주도하는 미국의 주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노릇인지를 절감한다.

그가 「쫓개기」에서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자아로의 열망을 보여준 것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면서도 넘나들기 어려운 인종적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의 현실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선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피부색을 넘어 하나의 인간으로 평가받고 싶은 욕구, 깊은 내면을 지닌 인간으로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 대화를 나누고 싶은 열망은 세 번째 시집부터 종교적 성찰을 통해 자기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려는 시인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 논문은 비교적 그의 초기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리영 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열망을 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보았다. 그 열망의 연장선으로 그가 어떠한 탐색의 여정을 보여주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또 하나의 후속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인 용 문 헌

- Cooper, Patty and Alex Yu. "Art Is Who We Are." *Breaking the Alabaster Jar: Conversations with Li-Young Lee*. Ed. Earl G. Ingersoll. Rochester, NY: BOA Editions, 2006, 55-73.
- Emerson, Ralph Waldo. *The Journal and Miscellaneous Notebooks of Ralph Waldo Emerson*. Vol. 11. Ed. William H. Gillman, et al. Cambridge: Harvard UP, 1961.
- Huang, Yibing. "Li-Young Lee's *The Winged Seed: A Remembrance*." *Amerasia Journal* 24.2 (1998): 189-91.
- Kitchen, Judith. "Review of Li-Young Lee's *The City in Which I Love You*." *The Georgia Review* 45 (Spring 1991): 154-69.
- Lee, James Kyung-Jin. "Li-Young Lee." *Words Matter: Conversations with Asian American Writers*. Ed. King-Kok Cheung. Honolulu: U of Hawaii P, 2000. 270-80.
- Lee, Li-Young. *The City in Which I Love You*. Rochester, NY: BOA Editions, 1990.
- _____. *Rose*. Rochester, NY: BOA Editions, 1986.
- _____. *The Winged Seed: A Remembrance*. Saint Paul, MI: Hungry Mind, 1995.
- Marshall, Tod. "To Witness the Invisible: A Talk with Li-Young Lee." *Kenyon Review* 22.1 (2000): 129-47.
- Miller, Perry. "From Edwards to Emerson." *Ralph Waldo Emer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Lawrence Buell.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13-31.
- Moyer, Bill. "A Well of Dark Waters." *Breaking the Alabaster Jar: Conversations with Li-Young Lee*. Ed. Earl G. Ingersoll. Rochester, NY: BOA Editions, 2006, 30-43.
- Patridge, Jeffrey F. L. "The Politics of Ethnic Authorship: Li-Young Lee,

- Emerson, and Whitman at the Banquet Table.”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37.1 (Spring 2004): 103–26.
- Piccione, Anthony and Stan Sanvel Rubin. “Waiting for a Final Shapeliness to Occur.” *Breaking the Alabaster Jar: Conversations with Li-Young Lee*. Ed. Earl. G. Ingersoll. Rochester, NY: BOA Editions, 2006, 44–54.
- Ramazani, Jahan. *A Transnational Poetics*. Chicago and London: U of Chicago P, 2009.
- Xianojing, Zhou. “Inheritance and Invention in Li-Young Lee’s Poetry,” *MELUS* 21:1 (1996): 113–32.
- Xu, Wenying. “Transcendentalism, Ethnicity, and Food in the Work of Li-Young Lee.” *boundary 2* 33.2 (2006): 129–57.
- Yao, Steven G. *The Foreign Accents: Chinese American Verse from Exclusion to Postethnicity*. New York: Oxford UP, 2010.

Abstract

From Disconnection to Incorporation: A Study of Identity Quest in Li-Young Lee's Poetry

Yoon, Hee-So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dentity quest of Li-Young Lee as a Chinese-American poet by analyzing his poems "Persimmons" and "The Cleaving." Born of Chinese parents in Jakarta, Indonesia, he underwent a process of continuous dislocation until he finally settled down in the United States in 1964. Therefore, one can readily anticipate that his poetry will show "a feeling of disconnection and dislocation" on the part of an immigrant who is required to assimilate into unfamiliar surroundings. However, Li-Young Lee also reveals a longing to escape from his narrow ethnic boundary as a Chinese-American and arrive at "nobodyhood" or paradoxically "everybodyhood," which is tantamount to a truly essential self beyond "cultural existence."

One of his best-known poems, "Persimmons" starts with an episode in which the poet is "slapped" by his sixth-grade teacher because he could not distinguish the phonetic difference between *persimmon* and *precision*. Even though he seems to succeed in assimilating into American society as he grows up, he has been gradually losing his connection to his cultural origin. His father's adherence to his cultural legacy shown in painting persimmons blind forces him to feel ashamed because of the separation he maintains from his ethnic heritage.

In "The Cleaving," Li-Young Lee shows a daring attempt to get beyond a feeling of disconnection and dislocation to strengthen his ties with his

ethnicity and finally incorporate himself into the shared humanity of different races. The poet focuses on a butcher in Chinatown and feels a sense of solidarity with him “with my own face.” This sense of congeniality leads him to find faces of diverse races in the butcher and embrace them, regardless of their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The poet also embraces Emerson's idea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existences in spite of his prejudice against Chinese people. This inclusion and tolerance in turn shows the longing of the poet to pursue his true identity as a universal self beyond race and ethnicity. Ultimately, he is ready to take the next step into another journey to reach his foundational place through religious reflections.

Key Words: Li-Young Lee, identity quest, disconnection, incorporation, universal self

리영 리, 정체성 탐구, 단절, 통합, 보편적 자아

논문접수일: 2014.11.13

심사완료일: 2014.12.12

게재확정일: 2014.12.23

이름: 윤희수

소속: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이메일: yoonhs@pknu.ac.kr